1,2,3 RUTC 응답의 영원 : 부활의 영적 의미와 축복(고전15:51-58) 3/31/2024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왜 그 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냐? 그것이 이해되는 만큼 우리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개인의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하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 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가 구원받고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더 안 믿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 본문의 바울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다

오늘의 메시지의 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적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적어도 세가지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속에는 이 땅에서 실제로 누려야 할 진짜 축복이 있다.

1. 부활은 사망을 통과한 축복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완성이고, 영광의 결론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했다(17-19절)

1)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사53:4)

실제로 그 당시의 종교인들,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죄목이 뭐냐?

① 신성 모독죄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는 것이다.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요14:6)

② 제사장 모독죄이다(교권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그 분이 죄를 가진 우리를 위해 죽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대속의 죽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마20:28, 요5:24, 요8:32)

늘 부끄럽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살아보라.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된다. 아니면 거짓말하든지, 숨어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③ 왕 모독죄다. 로마 제국이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도 이것이다.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를 통해 귀신이 쫒겨 가고, 불치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귀 신들의 왕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 귀신의 왕이 아닌 귀신의 권세들을 꺽은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가시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2)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행4:12)

3)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숨은 상처 때문에 올 수도 있다. 나의 허물과 실패로 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서 올 수도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 그런데 무엇이 결론이었냐?

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롬8:17).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막10:29-30)

② 어떤 경우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배후의 영적 사실을 알고 승리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 하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눅23:34)

2.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한 증거이다.

1)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죽음을 죽어도 죽음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55-56절).

죄와 저주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보란 듯이 그 사망의 권세와 법을 이기신 것이다.

2) 인간을 타락하고, 실패하고, 저주로 끌고 간 존재가 누구였는가?

그들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움직이는 사단의 존재이다(엡6:12).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단이 그 발 앞에 완전히 복종하기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했다(25절)

3)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까지 무너지도록 악한 궤계를 쓰는 사단을 대적하라(엡6:10-11.

사망의 권세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권세가 꺽이고 도망간다(눅10:19)

우리가 진짜 믿을 때에 이 흑암이 꺽이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막16:17-20)

3.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시작과 영광을 약속한 증거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 가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계7:9-10)

1) 그 분이 새롭게 하신 세상(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가진 이 몸도 전부가 아니다.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48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것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마10:28)

혹시 죽을 병이 와도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안이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2)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왕노릇) 될 것이라고 했다(계22:5)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킨 믿음, 수고, 헌신, 나누어준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58절).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3)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31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기준, 육신의 기준, 세상의 수준에 잡혀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잃어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뛰어 넘고 세계를 향해 간 것이다.

결론-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다(부활의 언약,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마28:18-20), 모든 민족 치유하고(막16:17-20),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다가(행1:8) 영원한 그 날에 다시 만나자는 것이다.

이 부활에 담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인생 속에, 하는 모든 수고 속에 계속 체험되기를 축복한다.